

표문화전당 더 기다릴 수 없다

별관 철거 놓고 7개월 허송... 참담한 '문화수도'

오늘 공대위·연석회의 해법 도출

옛 전남도청의 별관 해체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2개월째 전면 중단되는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별관 해법 찾기가 지연될 경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한국의 문화수도 광주를 건설한다는 지역민의 열원이 시작부터 뒤떨리는데 따른 내외의 비난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공대위'와 '시민단체연석회의'가 29일 별관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중재역을 맡은 민주당 박주선(광

주 동구)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별관 철거를 반대해온 공대위가 예초 '철거불가, 원형 보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철거 쪽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추진단이 이를 전폭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논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진단은 별관의 일부를 존치할 경우에도 원형 보존과 마찬가지로 전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별관 논란에 대한 해법 찾기가 돌고래를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다음달 10일부터는 공사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추진단이 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대립측에 발주

자의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매일 1천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전남 건립공사 중단으로 오는 2011년 문을 열 예정이었던 아시아 민주평화 교류원의 리모델링 용역비 10억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에 연쇄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문화전당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했지만 현재 기초 작업인 터파기 공사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명실상부한 민주·평화 도시 광주에서 도청별관에 대한 갈등의 장기화로 광주는 물론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원로들 사이에서는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조정 능력 상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추진단과 5월

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위해 상생의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대위가 도청 별관 보존에 대해 지역 사회와 문화관광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단도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균 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은 "광주의 미래나 다른 없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지역에서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며 "공대위와 추진단이 광주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별관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24일 공대위가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논란이 장기화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10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처럼 활짝

28일 코스피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인 64.58포인트(5.91%) 급등하자 광주 시내 한 증권사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주가지수 차트를 보며 모처럼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코스피 64P 급등

설 연휴 이후 첫날인 28일 증권시장은 연휴 기간 날아온 각종 해외 호재들에 힘입어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64.58포인트(5.91%) 오른 1,157.98로 마감.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8.85포인트(2.51%) 오른 361.68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의 상승 소식에 29.83포인트(2.73%) 오른 1,123.23으로 출발한 뒤 기관과 외국인 의 '쌍끌이 매수'로 상승폭을 키워 1,150선을 회복했다.

오전 10시54분에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는 '상승 사

이드'가 발생되기도 했다. 특히 독일 DAX 반도체 업체인 키몬다의 파산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가 10.52% 급등했고, 하이닉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주가 급등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인 23일보다 달러당 14.80원 급락한 1,376.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

백수들 “갈곳 없어” 기업들 “사람 없어”

불황 속 광주·전남 일손 부족 5천여명이나

광주지방노동청 조사

경기침체로 청년 백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대란이 본격화하는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백수는 갈 곳이 없는데,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의 불일치'(job mismatching) 현상이 가시화된 것이다.

28일 광주지방노동청이 상용근

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천9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력 수요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기준 광주지역 인력부족률은 1.4%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7%, 300인 이상 사업체는 0.2%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인력난이 심했다.

전남지역 인력부족률도 1.4%로 광주와 같았으며 300인 미만 1.5%, 300인 이상 0.6%를 기록해 역시 소규모 사업체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

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기업체가 원하는 인원은 1만3천438명이지만 채용인원은 1만952명에 불과해 2천526명의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기업이 9천886명을 채용하고 싶어하지만 채용인원은 7천691명에 불과해 2천717명이 부족하다.

광주 기업들은 이와 관련 47.5%가 '취업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전남도 39.2%가 같은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 '열악한 근로조건', '구직자의 준비 소홀' 순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광주의 경우 2천526명으로, 전년 10월말 현재 부족인원(3천40명)보다 적었다.

산업별로는 광주의 경우 운수업(57.9%), 제조업(26.5%), 전남은 금융·보험업(52.3%), 제조업(32.3%)이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 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거나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업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학자금 대출금리 내린다

2학기부터 1%P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 활동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대출

이자가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1% 포인트 정도 내리면 현재 7.3%인 학자금 대출금리가 6%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소 1% 포인트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리를 결정할 시점인 올 7월 시중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재단체 발행 계획이 예상대로 잘 진행될지에 따라 금리 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관련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면 5월경 장학재단이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제44회 광주일보 3월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062)220-0541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유사구 M대우 5층 062)221-1274-4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지구촌 구석구석...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전합니다. 연합뉴스